히말라야의 비명

현불논단



금해 스님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가을 산사의 새벽은 청량하다.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 아래 하늘은 붉고,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은 구슬처럼 빛난다. 이슬 떨어질까 고요히 걷는 걸음은 그 자체로 명상이다. 그러나 내일 아침도 이러하리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자연의 경고가 임계점을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북극곰의 터전 상실이나 바다의 해수면 상승처럼 '인간과 무관한 생명의 비극'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당장 우리 목숨줄을 죄어오는 현실의 파고가 됐다.

지난 8월, 히말라야 렌데 콜라 계곡에서 일어난 네팔의 참사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만년설의 붕괴로 발생한 거대한 토석류는 시속 180㎞라는 경악할 속도로 계곡을 삼켰고, 순식간에 1400여 명의 사상자와 6000여 명의 실종자를 만들었다. 무차별적인 파괴 앞에서 인간의 문명이 가졌던 오만함의 결과와 절망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緣起)와 불살생(不殺生)을 설하며 일체중생의 목숨을 차별 없이 존중하라 하셨다. 이 가르침 아래 불교는 2500년 동안, 미물은 물론 삼라만상 초목까지 유정(有情) 무정(無情)을 아울러 일체 생명의 행복을 발원하는 평화의 텃밭이었다.

그러나 설산에서 청정함을 품고 소박한 삶을 지켜온 네팔 공동체가 정작 탄소를 내뿜은 거대

문명 오만함이 생존 위협하는 기후 위기로
공업 희생 네팔 참사, 근본적 업식 전환 뽓
삼독 베어내고 절제를 삶의 뼈대로 세워야

문명국가들보다 먼저 참혹한 희생양이 됐다는 사실은, 우리가 짓고 있는 '공업(共業)'의 무서움을 뼈아프게 웅변한다.

인드라망처럼 촘촘히 얽힌 연기의 법계에서 더 이상의 피난처는 없다. 도심 빌딩 숲의 문명의 편리함과 소비가 지구 반대편 이웃의 삶터를 무너뜨리는 가해의 칼날이 됐으니, 인과(因果)의 그물망 속에서 그 누구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네팔 재난 현장을 돕기 위한 세계의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를 비롯해 불교계 전체 사부대중이 긴급 모금 및 현장 구조 활동에 나선 것은 아픔을 함께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발현이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도 지금의 위기를 건너는 일회성 다리일 뿐임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대중의 근본적인 업식(業識)의 전환 없이는 앞으로 반복될 고통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환경운동을 이어왔음에도 파국이 가속화된 현실을 냉철히 짚어야 한다. 텀블러를 챙기고 분리배출을 하는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실천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멈출 수 없다.

이제 자연 친화적인 절제된 삶은 수행자나 환경운동가뿐 아니라, 당장 내 아이와 가족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규범이자 계율(戒律)이 돼야 한다. 화려한 소비 문명을 지탱하는 탐진치(貪瞋癡) 삼독(三毒)을 베어내고, 절제를 삶의 뼈대로 세우는 대중적 삶의 전환이 절실하다.

히말라야 만년설이 무너지며 터져 나온 비명은 지구의 마지막 할(喝)이자, 호법신장의 서슬 퍼런 경책이다. 동시에 깨어있는 이에게는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최후의 기회이자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발원한다.

참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세간과 출세간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참 아름다운 인연입니다." 이 표현은 필자가 오십여 년 사는 의왕시 '사랑채노인복지관'의 표어다. 사랑채노인복지관은 참으로 따뜻하고 편한 곳이다. 이 식당의 점심은 2000원으로 집밥보다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식당 대기표 번호가 900번이 넘는 일도 있었다.

목욕탕, 각종 체육 문화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랑채노인복지관은 의왕시가 노인 천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의왕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그런데 참으로 반가운 것은 이 복지관의 위탁 법인이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악산 연주암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불교는 오랜 사회복지 실천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시(布施)와 복전(福田)의 사상을 동력으로 한 사회복지의 실천 내용은 초기 경전 〈니까야〉에 다양하게 나타난다. 붓다의 가르침을 깨달음의 틀에서 보는 시각에 익숙했던 필자는 초기 불교에 나타난 사회복지 운동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상윳따 니까야〉 '인색함의 경'에 실린 게송을 상기해 본다.

"험한 벌판길을 함께 가는 길동무처럼/ 가난한 가운데서도 나누는 사람들은/ 죽어 가는 것들 가운데서도 죽지 않으니/ 이것은 영원한 법이라네."

자주 찾는 복지관이 조계종 위탁 기관
불교 복지 전통·자비 되살아나 반가워
종교 무관심 시대 사회복지 운동이 전법

이러한 전통은 대승 경전 곳곳에 이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승만경〉이다. 이 경에는 승만부인이 세운 열 가지 서원 중 중생구제의 내용이 촘촘하게 나타나 있다. 노인복지, 고아의 아동복지, 재소자를 위한 교정복지, 병자를 위한 의료복지 등 현대의 복지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오늘의 상황은 어떠한가? 해방과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한국불교의 복지 역할은 매우 약화됐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해외 원조의 대행을 기독교가 독점하면서 전쟁 고아의 속출, 가정 파괴, 극심한 생활난 등 중생구제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교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불교 정화 등 내부 문제 해결에 급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불교의 복지 전통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때 기독교계가 독점하다시피 한 종합사회복지관 또는 전문 복지관 운영에 불교계가 대등한 위치로 참여하고 있다. 불교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복지 단체도 늘고 있고, 해외에 뿌리를 두고 활동하는 사례도 여럿이다. 한국불교의 전통에서 깨달음은 형님이고 자비는 동생이었는데, 이제 자비가 형님이 되는 느낌을 주는 반가운 현상이다.

종교에 대한 무관심이 증대되는 오늘의 현실에서 전법의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자비행일 것이다. 자비행의 구체적 방향이 바로 사회복지 운동이다. 오늘은 사랑채노인복지관에서 목욕하고, 점심 먹고, 바둑도 두면서 아름다운 인연을 즐겨야겠다.

글을 마무리하려니 평생을 사회복지 헌신으로 2024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성운 스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온다.

"사회복지는 화두요, 염불이요, 수행입니다."

社 說

한국불교 새 백년을 열자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했다. 제38대 집행부가 공식 출범하면서 조계종은 새로운 4년의 여정을 시작했다.

새 집행부에 사부대중이 기대하는 바는 명확하다. 지난 4년간 다져온 종단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국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일이다. 진우 스님 역시 취임사에서 지난 4년을 "종단의 안정과 새로운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제 그 토대 위에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백년을 향해 힘차게 도약해야 할 때"라고 선언했다.

안정은 현장 유지에 머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변화와 혁신을 지속하기 위한 기반이어야 한다. 갈등을 줄이고 종단의 기본 질서를 세웠다면 이제는 그 힘을 종단의 미래를 개척하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불교가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의 삶 속에서 어떤 소명을 다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37대 안정 토대 위에 한국불교 새 도약을
공의·공감·공심으로 시대 변화에 응답해야

취임사에서 제시된 방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 선명상을 국민마음운동으로 확산하고,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행을 강화하며, 존경받는 승가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불교의 본래 역할과 맞닿아 있다. 인공지능과 물질문명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마음을 돌보고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불교의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새 집행부는 선명상이 일시적 유행에 그치지 않도록 수행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누구나 일상에서 체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와 직장, 가정 등 생활 현장으로 수행문화를 확산할 때 불교의 지혜는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다.

자비행은 말보다 현장에서 증명돼야 한다. 취임법회에서 네팔 대홍수 피해 지원금과 사회노동위원회 기금을 전달한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이를 계기로 사회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응답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승가의 미래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출가부터 교육, 수행, 전법, 복지에 이르는 체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스님들이 수행과 전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의·공감·공심'은 종단 운영의 확고한 지향점이어야 한다. 주요 현안을 공론의 장에서 묻고,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함께 실행하는 과정 자체가 종단 혁신의 출발점이다.

제38대 집행부 앞에 놓인 과제는 총무원장이나 집행부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중앙과 교구, 사찰과 신도, 출가자와 재가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변화의 동력이 생긴다. 특히 지난 4년의 안정이 소통과 종단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38대 집행부가 안정을 디딤돌 삼아 변화와 혁신의 길을 열고, 세상의 아픔에 먼저 다가가 국민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불교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새 집행부의 4년이 한국불교의 다음 백년을 밝히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0월 7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0월 7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0월 7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